기획: 한국과학사학회 60주년 기념

서문: 한국과학사학회 회갑 기념 기획의 경위

임종태†

올해(2020년)은 1960년 7월 16일 서울 동숭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구내 다방에서 13명의 발기인과 35명의 창립회원으로 조촐하게 창립된 한국과학사학회가 회갑(回甲)을 맞은 해이다. 지난 7월 10일(금) 오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목암홀에서 이를 기념하는 학회가 열렸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회의 회갑 기념식도 창립 때만큼이나 조촐한 규모로 치러졌다. 애초에는 제주대학교 서귀포 연수원에서 7월 9일에서 11일까지 2박 3일의 성대한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2019년 서울대 문중양 교수를 위원장으로, 박민아, 선유정, 최형섭, 박지영, 임종태를 위원으로 결성된 준비위원회는 과학기술사의 다채로운 주제를 포괄하는 패널을 기획했고 대학원생들을 포함한 많은 회원으로부터 발표 신청도 받았다. 하지만 2월부터 본격화된 Covid-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대면(對面) 학술 행사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부득이 학회 창립을 기념하는 것을 제외한 여타 기획 패널과 논문 발표를 취소하여 반나절의 행사로 규모를 축소하고 장소도 서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학회 당일 서울대 목암홀에는 발표자, 소수의 원로 회원들, 그리고 학회 임원과 실무진 등 스무 명 남짓이 조촐히 모여 행사를 진행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0.42.3.589

† 서울대학교, jtlimbabo@snu.ac.kr

한 온라인 회의 방식을 함께 채택하여 수십 명의 청중이 온라인으로 기념식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행사는 모두 촬영되어 유튜브의 한국과학사학회 채널에 공개되었다.[1]

이날의 기념식은 원로 회원의 축사와 회고, 김근배 · 박범순 교수의 기념 강연, 지난 60년 우리 학회의 연구 흐름을 중견 학자들이 검토하는 특별 패널 등으로 다채롭게 기획되었다. 문중양 회장의 개회 이후, 박성래 · 김영식 두 원로 회원의 회고를 곁들인 축사가 있었고, 이어 한국 현대 과학사 연구의 권위자인 김근배 교수가 “과학 한국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개막 강연을 통해 100년간 한국 과학기술사의 흐름을 개관했다. “지난 60년, 앞으로의 60년”이라는 제목의 기획 패널에서는 구만옥 · 문만용 · 최형섭 · 이두갑 교수가 각각 자신의 전문 영역인 전근대 한국 과학사, 근현대 한국 과학사, 기술사, 서양 과학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연구 경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었다. 이어서, 60년 전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학회 창립의 순간에 창립회원으로 참석한 원로 회원 송상용 교수의 회고 강연 “한국 과학사학회의 초기 역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KAIST 인류세연구센터의 설립을 주도한 박범순 교수가 “역사에서 ‘발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폐막 강연을 통해 개념사 · 환경사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과학기술사를 지배해온 발전 담론의 문제화를 시도했다.

이 중 개막 및 폐막 강연을 제외한 발표자들의 글을 여기에 다시 싣는다. 맨 앞에 실린 박성래 · 김영식 교수의 축사를 통해서는, 1990년대 회장직을 맡아 학회의 성장을 주도한 원로 회원의 회고와 학회에 대한 제언을 접할 수 있다. 미처 원고가 정리되지 못한 송상용 교수의 회고 강연을 대신해서는, 2000년 한국과학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학회에서 송상용 교수가 발표한 회고, “한국의 과학사 연구를 돌아보며”를 실었다. 학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진귀한 회고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발표가 이루어진 2000년 당시 과학사 학계의 모습도 함께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일본 도쿄와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두 차례의 국제과학사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History of Science, ICHS)에 참석하고 쓴

---

[1] 다행히 이날 취소된 패널과 논문 중 일부(대표적으로 전근대 천문학사와 현대 농업사를 다룬 두 패널)는 10월 31일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역사학대회 과학사 분과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송상용 교수의 참관기 두 편, “사회적 과학사의 도전—제14회 국제과학사회의 참석 보고”, “동서 과학사 서술의 접근—에딘버러 국제과학사회의 참석기”도 함께 실었는데,[2] 1970년대 한국과학사학회의 진흥을 주도하던 학자들이 국제 과학사학계와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계 맺으려 했는지 보여 주는 좋은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60주년 기념학회에서의 기획 패널 “지난 60년, 앞으로의 60년”에 발표된 네 편의 글은 “한국 과학사 연구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기획으로 묶었다. 이 글들은 기념학회에서의 발표문이 수정을 거쳐 투고된 뒤 학회지의 다른 논문과 마찬가지로 동료 심사의 과정을 거쳐 게재되었다. 현재 우리 학회에서 전근대 한국 과학사(구만옥), 현대 한국 과학사(문만용 · 신향숙), 서양 과학사(이두갑), 기술사(최형섭)에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는 대표적 학자들에 의해 지난 60여 년 동안 각 분야의 연구사가 깊이 있게 분석되었다. 『역사학보』에서 격년으로 과학사 분야에 대한 리뷰가 실리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에만 한정된 데다 주로 전근대 및 근현대 한국 과학사만을 다룬 한계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과학사 전 영역을 포괄하면서 60여 년 장기간의 연구 흐름을 다룬 이번의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특히 이전의 리뷰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양 과학사와 기술사 분야의 성과들이 검토된 것은 기념학회 조직위원회가 특별히 의도한 것으로, 현재 우리 학계에서 “소수파”로 머무는 이 두 분야를 북돋움으로써 학회의 학문적 다양성과 활력을 키우는 데에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한다.

---

[2] 앞의 글은 『서울평론』 제48호 (1974.10. 10), 22-28에 실린 것을 수정 증보한 것이며, 뒤의 글은 『成大新聞』 756호 (1978. 3. 11)에 게재된 것이다.